

영암군,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공모 선정

CCTV·LED전광판·비상벨·스피커 등 기능 일체화 삼호지역 장소별 맞춤 기능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영암군은 지난 20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2023년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선8기 영암군정 목표실현을 위하여 혁신정책 일환으로 대불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 시설물들의 노후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였다.
영암군은 삼호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및 도시 슬럼

화 우려로부터 어린이, 노인, 여성들의 야간보행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학교 ▲공원 등 취약지 4곳에 스마트가로등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가로등'은 CCTV, LED전광판, 비상벨, 스피커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한 가로등으로, 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데이터를 보내 재난·인명구조, 주정차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홍섭 건설교통과장은 "야간활동 증가에 따른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목표로 「스마트



가로등,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안전한 영

암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대한숙박업 목포시지부와 바가지요금 차단 업무협약

목포시는 지난 25일 대한숙박업중앙회 목포시지부와 전국체전 대비 선수단 사전 예약 및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과 11월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수단 및 관광객의 원활한 숙박업소 예약과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한 협약이다.
목포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목포시지부는 ▲숙박업소 사전요금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한 자정 방안 강구 ▲시 홈페이지 요금제 게시를 통한 선수단 및 관광객의 예약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시와 사전요금제를 협약하고,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 등에 협약요금으로 숙박을 제공한 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 10월과 11월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 기간까지 요금표 게시 여부와 부당요금 징구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소방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기동채주본



함평=김광준 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학생들과의 소통·공감 시간 가져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역 학생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군수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함평중학교와 나산실용예술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했다.
취임 이후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 군수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냈다.
학생들은 이 군수에게 ▲자전거 도로 신설

▲동물 육교 건립 ▲청소년 농어촌 버스카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학생들이 제안한 안전들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신안군 '2023 전국 새우란(蘭) 대전' 대상 '김은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명품 새우란 300여 점 출품...새우란의 대중화산업 박차

신안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2023 전국 새우란 대전이 지난 4월 23일 압테면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새우란 대전은 전국의 새우란 애란인들이 출품한 새우란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사로 신안군에서는 첫 전국단위 새우란 대전이었다.
전국에서 출품한 300여 점의 새우란은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대상으로, 특별대상에는 산림청장상,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상, 1004심신안상인 신안군수상과 신안군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특별상을 본 상으로 선정했고, 추가 20점을 선정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여했다.
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영예는 황금빛의 매혹적인 붉은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색동' 품종을 출품한 광주광역시 김은희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지는 특별대상(산림청장상)인 2등의 영예는 임자면의 정인호에게 돌아갔으며,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은 '갈무리'란 품종을 출품한 광주광역시 한정윤이 차지했다. 또한, 1004심신안상(신안군수상)은 함평군의 김재원, 특별상(신안군의회 의장상)은 최병삼, 김광수, 박종근, 소재영, 안호선이 차지했다.
신안=이덕주기자

김산 무안군수, 지능형 농장 현장 방문 스마트팜 루시아농업회사법인 등 3곳 찾아 농민 의견 청취

김산 무안군수는 24일 일로읍에 소재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농가를 방문해 재배현황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루시아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4월 중순쯤 블루베리를 수확하기 시작한 시설 내부에서 김용남 대표로부터 블루베리 재배 및 지능형 농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갖 수확한 블루베리를 선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아따달다(대표 윤지환)의 방울토마토 재배 시설과 귀농 3년 차 농업인이 운영하는 한라팜의 완숙 토마토 스마트 농업 재배 시설을 둘러보며 농업 현장의 소리를 듣고 묻는 간담회를 갖고 소득 창출을 위한 시책 및 공모사업 개발 모색에 농업인과 행정팀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올해 군은 과학영농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농



장이나 아열대과수 재배 시설하우스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4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지능형 농장 모델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이성기기자

영광군, '안전 한바퀴'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생활 속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4월 26일 실시했다.
이번 첫 캠페인은 영광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한마을 치매극복 걷기캠페인과 병행하여 영광종합터미널 일대 한 바퀴를 순회하였으며, 영광터미널시장 등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수, 군의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의용소방대, 주민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행락철, 영농철, 놀이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안전신문고 ▲군민안전보행 ▲자율점검표 등을 집중 홍보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발굴 개선과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홍보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